클래식행 티켓 잡아라… 16일 마지막 승부

K리그 챌린지 정규리그 최종전
3~6위 '살얼음'…광주FC, 고양 꺾어야 자력 4위
준PO·PO 거친 뒤 클래식 11위 잡으면 승격

■K리그 챌린지 순위

순위	구단명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실차
				본	연	PK					
1	대전	35	69	20	0	0	9	6	63	35	28
2	안산	35	58	16	0	0	10	9	57	47	10
3	강원	35	51	15	0	0	6	14	46	49	-3
4	광주	35	50	13	0	0	11	11	40	35	5
5	안양	35	50	15	0	0	5	15	47	50	-3
6	수원FC	35	48	12	0	0	12	11	51	47	4
7	대구	35	46	13	0	0	7	15	48	45	3
8	고양	35	46	11	0	0	13	11	36	41	-5
9	충주	35	33	6	0	0	15	14	36	56	-20
10	부천	35	26	6	0	0	8	21	32	51	-19

지난 3월22일 막이 오른 K리그 챌린지 2014시즌이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다.

1부리그인 클래식 리그 진입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던 10개 팀은 오는 16일 36라운드 경기를 갖고 올 시즌 정규리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16일 오후 2시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시작되는 시즌 최종전에 K리그 팬들의 눈길이 쏠린다. 4강 플레이오프 티켓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클래식(1부리그) 진입, 챌린지 리그 우승 또는 승강플레이오프 승리

올 시즌은 K리그에 승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다. 챌린지 팀에게 주어진 1부행 티켓은 최대 두 장.

챌린지 우승팀은 자동으로 클래식 리그로 점프를 하게 된다. 거침없이 선두 질주를 했던 대전 시티즌은 이미 챌린지 리그 우승을 확정지으며 강등 1년 만에 다시 클래식 리그로 복귀하게 됐다.

남은 한 장은 클래식 리그 11위 팀과 챌린지 리그 플레이오프 승자가 벌이는 승강플레이오프 승자에게 주어진다.

남은 한 장의 클래식행 티켓을 얻기 위해서는 산을 넘고 또 넘어야 한다. 일단 챌린지 리그 4강에 들어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챌린지 리그 3·4위 팀이 먼저 단판 승부로 준플레이오프를 치른다. 22일 치러질 준플레이오프의 승자는 2위 팀과 29일 플레이오프 경기를 갖는다. 플레이오프에서 승부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산이 기다린다. 챌린지 리그 플레이오프 승자는 클래식 리그 11위 팀과 마지막 힘겨루기를 해야한다.

규정은 이렇다. 클래식 리그 최하위인 12위를 찍는 팀은 자동으로 챌린지 리그로 강등이 된다. 클래식리그 11위 팀은 챌린지 리그 플레이오프 승리 팀과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러 잔류와 강등을 결정하게 된다. 승강플레이오프에서 이기면 클래식 무대에 살아남는 것이고, 지면 챌린지 리그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승강플레이오프 경기 결과에 따라 양 리그의 최하위팀과 우승팀만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고, 네 팀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4위 광주 FC, 운명을 건 고양 HiFC와의 최종전

클래식 무대를 향한 광주 FC의 도전은 진행중이다. 광주는 지난 35라운드 부천 FC와의 경기에서 '브라질 콤비' 디에고·파비오의 연속골로 2-0 승리를 거두며 6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4강 안에 자리를 하면서 플레이오프를 향한 불씨를 살렸다.

아직 끝난 싸움은 아니다. 최종전의 결과에 따라서는 3·4위 팀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올 시즌 챌린지 리그의 1·2위 팀은 확정됐다. 대전이 20승9무6패(승점 69)로 안방에서 우승 잔치를 끝냈고, 올스타팀인 안산 경찰청(16승10무9패 승점 58)이 2위를 확정지었다.

3위 강원(승점 51), 4위 광주(승점 50·골득실차 5), 5위 안양(승점 50·골득실차 -3), 6위 수원(승점 48)까지는 승점 3점차 안의 박빙의 싸움 속 4강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다. 최종전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승자를 알 수 없는 싸움.

광주는 고양과의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다른 팀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게 된다. 하지만 무승부나 패를 기록할 경우에는 수원-강원, 안양-대구의 경기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살얼음 승부가 기다리고 있지만 광주는 필승을 다짐하면서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중원대와 연습경기를 갖고 가용자원들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고양전은 물론 앞으로의 플레이오프 일정까지 감안한 준비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그동안 많이 뛰지 못했던 선수들을 점검하고 플레이오프에 대한 대비를 했다"며 "부담감과의 싸움이다. 선수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최종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